



제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0.73%p 앞서는 48.6%로 당선을 확정 지어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이념, 세대, 젠더 갈등 등이 증폭되며 비호감파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이 돼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월 15일 대전 중구 응봉정이 거리를 찾아 시민을 만났다. 그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소망을 담았다. 다시 한번 시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7면

“제 첫 투표가 조금이나마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되는 이수연(20, 서구) 씨는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하는 일이 좀 더 잘되고, 대학생 선배들 취업 걱정에서 벗어나고, 시장의 상인들이 행복한 나라, 다음 대통령에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꽃샘바람도 유난히 번덕스럽게 느껴지는 초봄이 왔다. 지난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 찾아온 경제 불황으로 생활과 생계를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

3월 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총 12명의 후보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이 그리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대선을 앞두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의 목소리를, 부디 새 대통령이 귀담아듣기 바란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역시 가장 큰 이슈는 경제다. 장기 불황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가게가 불이 꺼져있거나 간판이 내려져 있다.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상인들

이 울상이다. 불황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상인들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 시장은 지역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시장은 경제를 살리는 매개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도 덤으로 오가는 곳이다. 시장 활성화는 그 지역의 문화를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시장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함께 힘을 낼 수 있다고 소상공인들이 말했다.

생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박종현(43, 중구) 씨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힘들었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재기하는 데 발판이 될,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각 후보가 제시한 경제공약들이 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 보장하는 정책 필요

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불평등과 혐오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필요하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주아름(39, 서구) 씨는 “7살 아들과 4살 딸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길 바란다” 말하며 인권이 존중받고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이념과 세대, 젠더 갈등이 어느때보다 높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청년, 일할 수 있는 환경 보장돼야

많은 이들이 현재를 가리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취업전문가는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결혼과 육아를 계획할 청년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며 “복지에만 치중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도 청년실업 문제도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창업을 준비하는 문정호(31, 서구) 씨 역시 “청년들이 꿈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꿈이 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본 적이 없다”며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기에 웹툰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미래를 위해 맘껏 달리고, 도전과 내일을 기대하는 평범한 삶을 청년들은 꿈꾼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올해 대학을 졸업한 이상혁(26, 서구) 씨는 “새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잘 듣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통과 실천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기본 생각일 것이다.

또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이주 가족들 역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 김남숙 대전다문화가족지원봉사단장은 많은 이주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에 바라는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특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인 ‘비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갱신 기간을 너무 짧게 두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가장 많은 화두에 올랐던 ‘부동산’ 역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분야 과제로 손꼽는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바로 잡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열어야 할 20대 새 대통령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시민통합과 화합 위해 힘써주길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시민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길 꿈꾸고 있었다. 조수현(중구, 39세) 씨는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해 보인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열을 화합하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대통령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줬다. 하지만 진영 간 대결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어 상대 후보를 비난·비하하기 바쁘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쓸 때다. 시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위 기사는 3월 9일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희내 인권기자

혼자 사는 여성, 내 집에서도 불안하다



▲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을 위한 시민연구반 활동 모습

대전시 1인 가구 실태는?

대전시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2020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36.33%로 전국 최고다. 전국 평균치보다 4.6%p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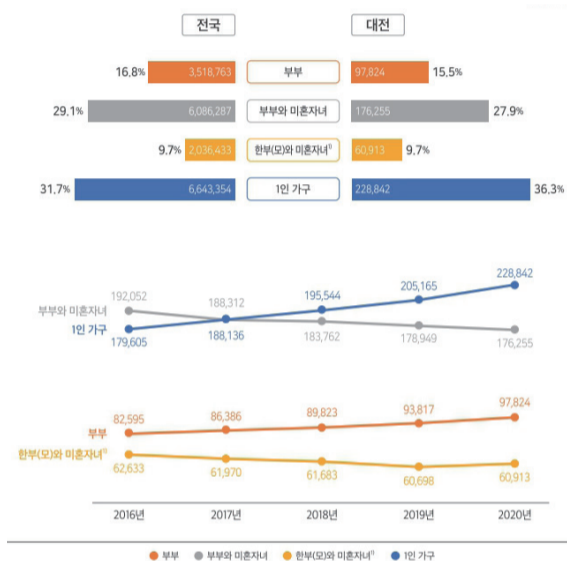
총 가구수는 228,842가구며, 1인 가구 다음으로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27.9%, 부부 가구 15.5%,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9.7% 순이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간 '2021 통계로 보는 대전 여성가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1인 가구 증가율은 여성 2.0%(49.9% → 51.9%), 남성 2.4%(25.7% → 28.1%)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 1인 가구는 (일반가구 대비) 51.9%, 남성 1인가구는 28.1%이다. 2020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만원 미만은 전체 가구 34.5%인데, 여성가구는 52.7%, 남성가구는 25.2%이다. 여성 1인 가구의 반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수준을 나타냈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점유 형태별로 보면 월세 46.9%, 자가 31.2%, 전세 16.7%, 사글세 1.5%, 무상(관사, 사택 등) 3.8% 순이다.

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대전시 여성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주거형태나 주거점유 형태 등에 있어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에서 대전의 여성 1인가구는 얼마나 '안전하지 않음'을 느낄까? 먼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비교적 안전하지 않거나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국 27.1%, 대전 24.8%로 비교적 낮다. 하지만 대전 남성 응답자 18.5%에 비해 6.3%가 높아 여성이 훨씬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는 전국과 대전, 남성과 여성 모두 '신종질병'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남성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위기를 더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반면 여성(전국 대전 공통)은 '범죄발생'이라고 답했다.

2020년 '대전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425 건의 피해 중 여성 242 건, 남성 162 건, 불상 21 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고 되지 않은 범죄까지 더 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여성이 13.1%로 남성 2.5%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여성은 36.7%가, 남성은 8.0%가 범죄피해에



▲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및 2016 - 2020 변화 [단위: 가구, %]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처럼 집 근처 혹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5배 내외로 높다.

'여성 1인 가구 주거생활 안전' 정책은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도어락과 창문잠금장치 등이 포함됐다. 주거지에서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 반기는 바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의 재산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너무 적은 아쉬움이 있다. 또 지원되는 제품이 대상자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해지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정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범죄피해로부터 시급히 보호해야 할 여성 1인가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대전시민생활안전 SOS랩에 참여했다. 5가지 주제 중 필자가 참여한 팀의 주제는 '1인 가구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전문제'였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WOW D.lab'이 주관해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지역사회문제 중 특히 사회적 약자 안전 문제, 생활공간 및 환경 문제 등 시민의 생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로서 Solution in Our Society(우리 사회의 해결책)의 약자이다. 지난 2019년 제1기 5개의 주제로 시

작대 4기까지, 매 주제별로 5~6 명의 대전시민과 2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했다. 시민연구반을 통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ICT 기술을 활용해 그 아이디어를 기업체에서 실현하게 된다.

시민연구반은 1인 가구 중에서 누구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가부터 정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상자는 적더라도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치명적이어서 보호가 시급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실제 남녀 다양한 연령층의 홀로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범죄 프로파일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센터 관계자, 현직 경찰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데이트폭력 및 헤어진 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된 여성

그 결과 여성 1인 가구 중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이별통보(혹은 이혼) 후 전 연인(혹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좁혔다. 11회에 걸친 조사와 논의, 실험 등을 거쳐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로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은, 스토킹(전 연인, 전 남편 등)이 집(앞)까지 찾아와 위협을 하거나, 범죄의 징후가 포착되면 모니터링 된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근거로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았다. 앞으로 이 아이디어는 IT관련 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제품개발, 실증을 거쳐 구현(제품 생산판매)하게 된다.

시민연구반의 리빙랩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또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온통 정치권에 쏠리고 있는 지금도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조차 잔혹한 피해를 당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물론 어떤 제품 하나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주거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범죄피해를 늘 두려워해야 할지라도 집에서만큼은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연구반 진행 중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전국 1인 가구 최고의 도시인 대전에서, 시민이 주축이 돼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칭찬하고 싶다"는 평을 들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고, 그러려면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부터 해야 하겠다.

고착화된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다

돌봄과 상생, 통합의 리더십을 지향하는 대전여민회

“지난 2월 1일은 설날이었다. 성평등한 명절 보내기를 서로 응원하는 여민회를 통해 명절이 여성에게만 돌봄 노동이 강요되는 휴일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고착화된 성별 고정관념을 점검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장도 보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었다. 어떤 음식이 제일 인기 인지 투표도 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유익한 명절을 보냈다.”(김윤경,46,동구)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08년 선거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114년이 지난 오늘도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이에 대전인권신문은 대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여민회를 찾았다. 김정임 사무국장을 만나 대전여민회 사업을 알아보고 활동을 통해 달라진 회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W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 지향

대전여민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교육사업과 성평등 문화 가꾸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학습을 통하여 강사뱅크를 조직하여 지역아동센터,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을 한다. 이외에도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성불평등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활동한다. 섹슈얼리티 운동으로는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여 피해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 반성폭력 운동에 적극적이다.

1987년부터 지역 여성의 인권과 시대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운동 활동을 해왔다. 지금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과 일하는 여성들의 모임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일터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입사부터 퇴직까지 성차별(임금, 교육, 승진,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상담한다. 또한 지역 내 노동문제에 대응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한다.



▲ 지난 3월 8일 대전여민회는 3.8 세계여성의 날 대전공동행동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과 성폭력 해소를 위해 페미니즘이 절실하다고 외쳤다.

교육을 들었던 송미령(55, 유성구) 씨는 "여민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주의 강좌를 몇 해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페미니즘의 답답함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를 통해 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가부장제의 서열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족 존중 문화로 이어졌다"며 "자녀 양육에서도 성평등 인식을 갖고 자녀와 소통하며 주변을 살피면서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에 성장주의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여민회는 한부모가족 운동의 일환으로 한부모/미혼모 여성의 자조 모임을 조직하여 역량 강화 및 연대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부모자조모임 '한아름' 운영)하고, 한부모서포터즈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서포터즈단 활동을 통한 한부모/미혼모 가족의 유형별 당사자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프로그램으로 나들이, 가족캠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김정임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대전여민회는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하여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를 지향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돌봄과 상생,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한다"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안전한 성평등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활동들이다"고 강조했다.

W 대전여민회, 스쿨미투 운동

지난 3년 동안 대전여민회는 지역 내 대전스쿨미투대응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스쿨 미투 운동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는 대전지역 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디지털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을 모집하여 4개월간 1,700여 건을 모니터링하고 1,600여 건의 범죄를 신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 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었다.

지역 내 현안 참여, 지역 여성운동 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에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동참하는 대전여민회의 활동들이 시민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대전여민회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학부모 데이터 수집단'은 지난 1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참여자치 시민상을 수상했다.

김정임 사무국장은 생활 속의 여성운동, 대안 있는 여성운동,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대전여민회를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글·사진 강민주 인권기자

보편적 인권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일상생활 중 경험한 인권이야기, 독자투고에 선정되면 본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인권도서 서평 등 인권 관련된 글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보내주실 곳 djhr1210@naver.com 분량 1,000자 이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Daejeon Human Rights Center

STOP THE WAR IN UKRAINE

NOWAR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을 기원합니다.

NO WAR
STOP WAR

NO WAR
STOP WAR

NO WAR
STOP WAR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에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Daejeon Human Rights Center

인권카드뉴스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해주세요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업적을 기리는 날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부터 시작되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천 여 명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열악한 공장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걸기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1977년 UN이 이 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공식화 되었습니다.

세계모든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인정할 것

빵은 평등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생존권'을 의미한다.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생존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달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날
대한민국 최초 여성 인권 운동가 '나혜석', '박인덕'...

1920년대 한국 최초 여성 인권운동가 '나혜석', '박인덕' 등이 [국제 부인 데이]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 해 왔지만, 해방 이후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1945년 이후 맥이 끊겼다가, 1977년 UN의 공식적인 국제기념일 선포이후 1985년 제 1회 '한국 여성 대회'로 부활 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공동육아'

첫번째로 '공동육아'하기입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 등 '여성의 일'이라만 취급되었던 모든 가사 노동을 공동 부담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를 해보아요.

여성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두번째는 '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 동등한 가치의 일에 대한 평등한 임금,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통해 공평한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성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정치적인 관심과 참여'

세번째로 '정치적인 관심과 참여'하기입니다. 현재 여성들은 국회 의석의 25%만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지도자들의 7%미만을 차지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여성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지속적인 관심 갖기'

네번째로 '지속적인 관심 갖기'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온라인 등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관심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미의 기준에 대한 도전'

마지막으로 '미의 기준에 대한 도전'하기입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여성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아름다움은 크기, 능력, 색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빛납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9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114년이 지난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어떤가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는 여전히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가정과 일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날 여성 인권을 돌아보고 차별과 폭력 없는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김시연 인권알림이단



동화속 인권 난민 말고 친구

인간의 존엄성 회복은 인류의 과제

동미아와 유림, 사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절친'이다. 사라는 6년 전 전쟁을 피해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왔다.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하지만 학교에서 반 대표를 할 만큼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림이가 갑자기 사라에게 쌀쌀맞게 군다. 떠돌이 난민이라며 모진 말을 하고 사라의 책상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충격적인 글을 남기기까지 하는데... 사라는 변해버린 유림이의 행동에 당황하고 미아도 유림이의 행동에 실망한다. 유림이는 왜 그런 것일까? 부모님이 이혼하고 워킹맘인 엄마하고만 함께 살던 유림이에게 삼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그런 삼촌이 시리아로 해외 자원봉사를 떠나 연락이 끊겨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에게 향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림이는 삼촌이 떠난 것이 사라 때문만이 아닌 것을 알고, 사라도 유림이와 한 마음으로 삼촌을 걱정하며 다시 절친이 된다. 그 와중에 사라의 난민심사 불인정 소식을 듣게 된다, 유림이는 사라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은 삼촌에게 사라의 일을 의논하고, 삼촌은 "친구의 자격으로 사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해

보렴. 너희가 곁을 지켜 주는 것만으로도 사라는 충분히 힘을 내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미아와 유림이는 사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친구로서의 일을 계획한다.

"떠돌이 난민, 너희 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 전쟁으로, 때로는 정치나 종교 문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난민을 택한다. 하지만, 떠난 그곳에서도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목숨 걸고 떠나왔지만 '난민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본국으로 가야한다.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올해로 11년이 된다. 시리아 내전은 난민 문제와 더불어 인명피해 측면에서 매우 비극적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신원 확인 사망자만 35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여성, 어린이 희생자가 약 55,000명에 육박한 수치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도 2011년 7%에서 현재 21%로 3배 늘었다고 한다. 발달의 권리를 착취당한 것이다.

난민, 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봐

특히 내전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 아동을 강제로 조기 결혼시키고, 아동 노동착취와 소년병 징병 위험에 내몰린 경우가 있다. 전쟁을 피해 뿔뿔이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은 10년 이상 내전으로 삶의 결정권이 사라진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마저 파괴당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을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권감수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을 불편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라, 미아, 유림'이가 오해를 풀고 그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없던 순수한 친구로 되돌아간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은 이제 모든 인류의 과제이다.

한숙희 인권기자

◀ 『난민 말고 친구』 최은영 지음, 신진호 그림

여자 피겨스케이팅 바지 입으면 안되나요?



여성스러움의 포장을 벗다

지난 2월 20일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세계인의 축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 축제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감동과 기쁨을 느낀다. 그중 빙상 위의 예술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은 현란한 고난도 점프와 스핀, 리프트, 스텝, 턴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며, 아름다운 선율에 맞춘 유려한 동작과 표정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다. 고도의 기술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화려한 동작과 함께 선수들의 의상 또한 형색색 화려하고 다채롭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의상으로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다. 2월 15일 스웨덴 대표로 참석한 '요세핀 탈에가드'가 올 블랙의 의상을 입고 출전했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30명의 여자 선수 중 유일하게 바지로 된 경기복을 입었다. 바지를 입은 그 자체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피겨스케이팅 의상 기준에는 여자 선수들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선수들은 관례로 치마를 입고 출전하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남자 선수는 긴 바지를 입어야 하며 노출이 심하면 안 되고 남자선수가 치마를 입으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여자 피겨스케이팅을 생각하면 클래식 음악에 발레리나 같은 실랑거리는 치마와 파스텔색, 반짝이 등이 생각난다. 이런 현상을 미국에 있는 퍼듀대학교 젠더와 스포츠학의 쉐릴 쿠키 교수는 "규정이 바뀌어도 채점을 하는 심판의 '문화적 기대'가 그대로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 여성의 가치관은 생각보다 견고하다. 의상을 선택하는 선수뿐만 아닌 심판과 관객도 전통적 여성의 가치관을 벗어나 다양한 여성을 기대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여자 선수들이 몸이 훤히 보이는 의상이 '성 상품화'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탈에가드는 자신이 바지를 입은 이유를 "음악에 잘 어울리는 의상이었고 이런 옷을 입을 때 내가 강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느끼게 돼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운동능력과 신체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여자 선수들의 치마를 더욱 고착시켰을 수도 있다. 탈에가드의 근사한 의상을 시작으로 여성스러움의 포장을 벗고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의상 선택과 멋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선우 인권기자

인권 칼럼

스포츠가 정치를 만났을 때

지난달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개막식과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라고 생각한다. 개막식 행사 중 중국 국기 전달 장면엔 한복을 입은 여성을 등장시켜 우리나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는가 하면, 러시아의 도핑 의혹 선수가 경기에 나오자 국제적인 성토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더 곱씹어볼 포인트는 그 이면에서 작동한 정치 논리에 있다. 이번 올림픽은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이 일찌감치 정치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다수의 나라들이 정상급 외교관을 개막식에 보내지 않았다. 중국은 시위라도 하듯 성화의 최종 주자로 신장위구르 출신의 선수를 내세웠고 개막식은 중국공정 과시의 장이 되었다.

러시아는 이미 국가적인 도핑 조작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단 파견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약물 복용 의혹에 휩싸인 선수를 두둔하며 국가주의 입장을 보인다. 강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어찌 낯설지 않다. 현상은 다르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스포츠와 국력을 동일시하며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몰두해왔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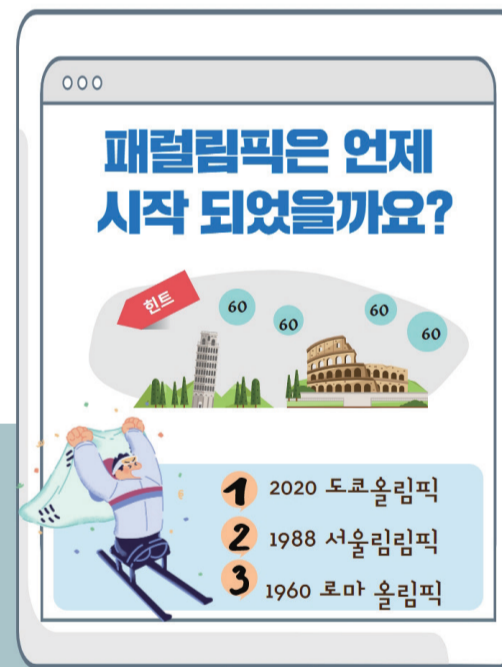
스포츠와 권력 게임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의 당위성을 얻어야 하는 점에서 닮아있다. 그래서 인지 정치인들이 그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스포츠를 통해 찾아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스포츠의 공정함을 배운 게 아니라 스포츠로 불공정을 덮어왔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군사정권이 그러했고 미국에 지기 싫은 러시아의 현재 모습이 그러하다.

스포츠도 문화라고 본다면 국가가 개입한 스포츠는 나쁜 문화를 낳는다. 금메달을 따야만 애국하는 것이고, 단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합리화된다면 폭력과 강압에 익숙한 엘리트 체육인들은 비난에 대한 변명거리를 확보한다. 도망치듯 출국하는 학교폭력 연루 배구인을 뒤따르던 보호자가 연신 고개를 돌려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스포츠는 오로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그 어떤 외부효과도 받지 않고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신성하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는 국가나 단체에 동원되어 착취되는 구조가 아닌 개인의 역량 발휘 자체로 인정받고 박수 받아야 할 것이다.

김진호 편집위원

! 짹 짹 퀴즈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3월 4일 개막식을 열고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46개국 564명이 참가하여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 78개의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은 8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여 스포츠 정신에 따라 차가운 경기장에서 뜨거운 경기를 펼쳤다. 패럴림픽(Parallel)은 또 하나의 올림픽(Olympic)으로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지구촌 축제이다.

정답은 다음장에...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내가 함께 만든 내일

‘평등길 1110’ 영화를 보다

지난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중구에 위치한 씨네인디유 극장에서 ‘평등길 1110’이 상영했다. ‘평등길 1110’은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0만인 청원 이후 심사 기한을 미루는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두 명의 인권 활동가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1110’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2021년 11월 10일 국회심의 심사를 받는 날을 의미한다. 영화는 인권활동가인 미루씨, 종결씨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국회까지 500Km 넘는 대장정에 나섰고, 30일간 장거리 도보 행진에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길고 긴 여정 중 부산, 대구, 청주, 안산에서 성별, 종교, 장애, 한부모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및 다양한 이유로 온갖 차별을 경험한 그들의 목소리를 영화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법사위는 전년 11월 10일 예정된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심사를 하루 전날 2024년 5월 29일로 연기했다.

영화 상영 후 오연화(대전녹색당)운영위원장 사회로, 차별금지법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마당 시간을 가졌다. 박재홍(장애인배움터 풀꽃 야학교)교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한계와 장애인 전담 장애인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 했으며, 전가연(베트남 출신 이주)씨는 이주민 차별과 대책 그리고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에서 차별적 요소가 적극적 논의가 될 수 있는 개선을, 성소수자 부모모임 회원 라라씨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혐오가 없는 세상, 성별 정체성 정립을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법이다.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다할 바란다. 우리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글·사진 황성업 인권기자



▲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중구에 위치한 씨네인디유 극장에서 ‘평등길 1110’을 상영했다.

독자 투고

일상회복을 기대하는 봄날 대학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왔다. 추위 보이기만 했던 나무들이 초록색 옷을 준비하고 형형색색의 꽃망울이 잡히기 시작하면, 겨울 내 행했던 대학 내 캠퍼스도 활기를 찾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필자는 작년 이맘때쯤 알록달록한 캠퍼스를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달 2월 7일 교육부는 다가올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대학에게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 수업 유지를 발표함으로써 활기찬 캠퍼스를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면 수업 소식에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김준중(가명, 간호학과 2학년) 씨는 “방학 기간 중에도 교내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며 “개강 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며 접촉이 많아질 텐데 지금 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셀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 기존 근로 학생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던 때보다 느슨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월 7일 기준 20만 명이 넘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불안감을 보이며 대면 수업 전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학교와 멀리 떨어져 사는 이평등(가명,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씨는 “동영상 녹화 강의의 경우 듣고 싶은 시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확보하는 등 비교적 자율성이 있었다”고 말하며 “실시간 수업은 수업에도 수업 시작 10분 전 일어나 얼굴만 단정히 정돈하고 카메라를 켜는데 이제 왕복 3시간 이상 통학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다”라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반면, 임인권(가명, 정보통신학과 3학년) 씨는 “2년 동안 교수님이나 동기,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통 방식의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시끌벅적한 캠퍼스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MT 및 축제와 같은 학교 행사 진행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온라인의 한계를 벗어나 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길 원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의 익숙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점차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으려 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걱정스럽지만 대학가는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물론 완전한 일상 회복을 하려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기에 모든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개개인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일상을 회복하자.

임세나 한밭대학교 3학년

! 짹 짹 퀴즈 정답

000

3 1960 로마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패럴림픽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림픽과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

국제 신체 장애인 체육 대회,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 병원의 의사 구트만(Guttmann, L.)에 의하여 시작해, 1952년에 국제 대회로 발전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 직후에 열린 후로 4년에 한번 올림픽 개최지에서 열린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성별, 인종, 나이, 장애, 빈부격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필수적 권리이다.

* 2021년 시민인권페스티벌에서 외친 '스포츠 인권 다짐' 중 일부.

모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

대전역 동광장 해외입국자 안내소를 찾다

방역 당국이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행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했던 7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3월 10일 기준 대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884명을 기록하며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에 불안해할 때 누군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해외 역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입국자안내소 상황이 궁금했다.

지난 2월 말 여러 차례 대전역 동광장 해외입국소를 찾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디보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이동식 컨테이너와 비닐 칸막이가 설치된 임시 시설이었다. 대전역 동광장 해외입국안내소는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하여 대전 및 인근지역으로 입국하는 자들이 거쳐 가야 하는 곳으로 21년 한 해



▲ 대전역 동광장에 위치한 해외입국 안내소.

동안 해외에서 대전에 입국한 인원은 7,109명이며 22년 1월 한 달 기준 587명이다.

업무를 위해 파견된 직원들은 누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입국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사망감으로 365일 휴일과 명절 없이 일 해야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지만 전사들을 위한 시설은 열악해 보였다.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해제로 해외입국자안내소의 역할을 축소되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선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글·사진 김영호 인권기자

'시'와 '인권'이 마주할 때

눈이 좋아요

최봉호 인권기자

눈이 좋아요
자유스럽게 떨어지는
여기저기 공평하게 끌고루 퍼지는
연대해 무리지어 내리는
하얀 눈이 좋아요

파인 꽃 튀어 나온 곳 끌고루 덮어
따뜻한 하얀색 이불이 되어요

온도계 수은주가 오르면
원래 모습을 보이지요

아름다움과 추함이 드러나오
높고 낮음이 드러나오
그렇게 눈이 물이 되면 대지는 역겨운 냄새를 풍겨요
신발은 황토색으로 변해요

그래도 자유로움이 너울너울 춤추고
들쭉날쭉 모님이 둥글둥글 평평해지고
하나하나 연대해 쌓인 눈송이들
상처가 아물고 높낮이가 매끄러워진 대지가 좋아요

백색의 너른 대지
포근한 하얀 이불로 덮인 세상
모난 차별이 둥그렇게 다듬어진 세상
꿈이 아니라 진짜 눈이 평평 쏟아지겠지요

인권개념은 바뀌어 왔다. 처음에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권 쟁취와 평등권 확보로 출발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주체의 여러 권리요소가 개념이 확장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집단의 인권을 강조한 연대권 개념이 확립되었다. 지금은 주거권,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정보권에까지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큰 흐름을 시에 담아 보려 했다.

청소년의 선택은 달랐다

18세 미만 청소년 사전모의 투표 이재명 후보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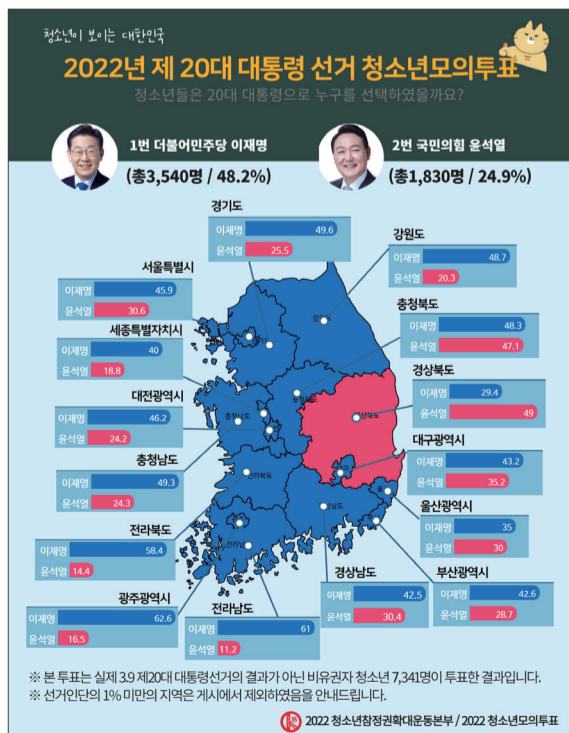
▲ 지난 3월 9일 대전YMCA는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통령 모의투표가 대전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동시 이뤄졌다. 대전YMCA는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만 16세 청소년 투표권 하향과 선거권 교육 확대를 위해 3.9대통령선거와 6.1동시지방선거 모의투표를 준비하고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YMCA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7,341명이 참여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모의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48.0%인 3,540표를 얻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4.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9.3%의 선택을 받았다. YMCA청소년모의투표 운동 사무국에서는 이후 당선자에게 당선증과 함께 청

소년들이 제안하고 희망하는 정책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는 실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대전 YMCA 김종남 사무총장은 “실제 당선인과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글·사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권리



대전시 감정노동존중 수기 공모전

공모기간 2022년 3월 14일(월) - 4월 15일(금)

결과발표 2022년 4월 27일(수) - 4월 29일(금)

시 상 식 2022년 5월 1일(일) - 5월 2일(월)

시상내용

대 상	1,000,000원(1명)
우수상	500,000원(1명)
장려상	200,000원(2명)
입 선	문화상품권 30,000원(10명)

공모규격 A4 3매 내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맑은고딕, 11pt, 자간0%, 여백(기본), hwp한글파일

*공모대상,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www.djiw.or.kr)

*문의 감정노동지원팀 042)345-2582/3